

1. 보험회사 소송현황 비교·공시 확대

※ "취약계층에 대한 보험회사의 소송남용 방지 방안" 세부과제('20.11.9일)

- (현황)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반기별로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①보험금 지급관련 소송제기 건수, ②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을 공시중입니다.
- (개선) 미성년자·취약계층*에 대한 보험회사의 소송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비교·공시 내용을 ③소송관리위원회 개최 및 소송심의 건수, ④심의결과(승인·불승인 건수) 등으로 확대합니다.

※ 미성년자·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회사 소송통제방안(‘20.11.9일)

① 소송관리위원회 사전심의 대상 확대(보험사 내규개정 完)

- (i)미성년자·취약계층 상대 구상소송, (ii)소멸시효 경과 채권에 대한 구상소송에 대해 보험회사 자체 소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
- 위원회 심의후 소송제기 여부 최종결정시 준법감시인 협의 등 절차를 의무화

② 보험회사 소송현황 비교·공시 확대(감독규정 개정사항)

- 보험회사가 비교·공시하는 항목에 소송관리위원회 운영현황을 추가

2. 소액·단기보험의 보험기간 설정

※ 소액단기보험업 제도 도입(‘20.12.8일)에 따른 시행령(안)의 위임사항 규정

- (현황) 입법예고 중(‘21.2.5.~’21.3.17.)인 「보험업법 시행령」 개정안은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을 ‘2년 이하의 범위’에서 감독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(감독규정) 제도 시행 초기인 점, 계약자 보호, 예상치 못한 위험발생 등을 고려하여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습니다.

※ **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제도**(시행령 입법예고안)

- (도입취지) 소규모 자본으로 **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·간단보험**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함으로써 **보험산업의 경쟁과 혁신**을 도모
- (자본금) 기존 종합보험사 300억원 → **소액·단기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시 20억원**
- (취급종목) **생명**(생명), **손해**(책임, 비용, 날씨, 도난, 동물, 유리), **제3보험**(질병, 상해)
- (보험기간) **1년** / (계약자당 최대 보험금) **5천만원** / (회사 수입보험료) **연간 500억원**

3. 책임준비금 적정성 외부검증 절차 마련

※ **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제도 도입**(20.12.8일)에 따른 **시행령(안)의 위임사항** 규정

- (현황) 입법예고 중('21.2.5.~'21.3.17.)인 「보험업법 시행령」 개정안은 책임준비금 적정성 관련 **외부검증 대상, 검증항목, 관련 절차**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※ **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제도**(시행령 입법예고안)

- (도입취지) '23년 시행되는 **IFRS17**에 대비하여 **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적정성**에 대한 **외부검증을 의무화**함으로써 **보험산업의 신뢰성·책임성**을 제고
- (검증대상) (i)**총자산 1조원** 이상 보험회사, (ii)**생명·자동차·제3보험** 취급 보험사
- (검증항목) 年 1회 (i)**책임준비금 적정성**, (ii)**산출시 사용된 가정의 적정성**

- (감독규정) 책임준비금 적정성 외부검증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, 필요시 재검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.

4. 보험회사의 외국환 포지션 한도 상향

※ “**외화유동성 관리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**” 세부과제('21.1.20일, 경제중대본)

- (현황) 보험사는 **외국환 포지션*** 한도(지급여력금액의 20%) 내에서 **환오픈 투자**(환헤지 않은 투자)가 가능하며,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필요적으로 환헤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* (외국환 포지션) 외화표시 자산과 부채의 차액으로 환위험 노출 정도 의미

- 이로 인해, 단기간 내에 포지션 한도 준수를 목적으로 하는 환헤지 수요 증가시 외화자금시장 수급 불균형 발생으로 헤지 비용이 상승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

□ (개선) 외화시장 수급 균형, 해외 투자한도 확대* 등을 고려하여 외국환 포지션 한도를 “지급여력금액의 20% → 30%”로 상향합니다.

* ('20.5월 보험업법 개정) 보험회사 총자산의 30% → 50%

○ 현행 한도가 他업권(은행·금투, 자기자본의 50%) 대비 낮은 수준인 점을 감안하였으며, 환오픈 투자 증가에 따른 리스크는 RBC* 등 건전성 감독수단을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.

* 환오픈 투자시 위험계수(8%) 부여로 보험회사의 요구자본 증가

3

향후 일정

□ 규정변경 예고, 규제심사,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금년 상반기 중 개정 「보험업 감독규정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.

< 일정 등 안내사항 >

▶ 규정변경예고는 3.12일~4.21일까지 40일간 이루어지며, 그 기간 동안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-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·전화번호
-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☞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
금융위원회 보험과
- 전자우편 : kkhmarine@korea.kr / - 팩스 : 02-2100-2947

※ 감독규정 개정안 전문(全文)은 “금융위 홈페이지(www.fsc.go.kr) > 정보마당 > 법령정보 > 입법예고”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
할 경우 출처를 표기
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